

만남

2015 12월

통권 131호
(예수 성탄)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님 :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주님. 시간은 있습니다. _____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가난한 이들에 대한 자선(집회 3,30-4,10)-	4
주임신부님 교리	교리 120~122 -----	7
기도 소개	묵주 기도 _____	14
공동체 소식	_____	16
지방 공동체 소식	_____	20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_____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_____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_____	23
미사안내	_____	24

《교황님의 12월 기도지향》

❖ 일반 지향 -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기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가 모두 체험하도록 기도합니다.

❖ 선교 지향 - 가정

가정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예수님의 탄생에서 확실한 희망의 표징을 찾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시간은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 미안해요. 시간이 없어요!
- 미안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이만 줄일게요.
-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여유도 없어요!

주님,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이들은 노느라고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너무 많은 공부를 하느라고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자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환자들은 치료를 받아야 하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간에 쫓겨 다닙니다.

이 세상이 너무 급해서 서로 떠밀고 밀려가면서 미치광이처럼 뛰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정말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당신은 불현듯 나타나십니다.

주님 혹시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이 아닌가요?

한 시간이 너무 짧고 하루가 너무 짧고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 앞에 나의 시간을 내어놓습니다.

주여, 제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시간의 선물에

당신이 원하시는 나의 그림을 그리게 하소서.

❖ 가난한 이들에 대한 자선(집회 3,30-4,10)

◆ 저번 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한다.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1장, 1절 노래하겠습니다.

◆ 주님 초대하기 (화답송)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사랑의 주님, 저희가 나눔을 통해 행복을 느끼게 하소서.
-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복음 나눔)

(진행자) 어느 분이 집회서 3장 30절에서 4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3, 30 물은 타오르는 불을 끄고

자선은 죄를 없앤다.

31 은혜를 갚는 이는 앞날을 내다보는 것이니

그가 넘어질 때에 도움을 얻으리라.

4, 1 애야, 가난한 이의 살길을 막지 말고

궁핍한 눈들을 기다리게 하지 마라.

2 배고픈 사람을 서럽게 하지 말고

곤경에 빠진 사람을 화나게 하지 마라.

3 화난 마음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없는 이에게 베푸는 일을 미루지 마라.

4 재난을 당하여 호소하는 이를 물리치지 말고

가난한 이에게서 네 얼굴을 돌리지 마라.

- 5 애절하는 이에게서 눈을 돌리지 말고
그에게 너를 저주할 빌미를 주지 마라.
- 6 그가 비참한 삶 속에서 너를 저주하면
그를 만드신 분께서 그의 호소를 들어 주시리라.
- 7 회중이 너를 사랑하게 하고
웃어른에게 머리를 숙여라.
- 8 가난한 이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평화의 인사를 상냥하게 건네어라.
- 9 억눌린 이를 억누르는 자의 손에서 구출하고
네가 심판을 내릴 때에는 심약해지지 마라.
- 10 고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고
그들의 어머니에게 남편 노릇을 해 주어라.
그러면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되고
그분께서 네 어머니보다 더 너를 사랑해 주시리라.

1.(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2.(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3.(진행자) 마지막으로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나눔)

(말씀의 나눔이 떠오르지 않을 때, 아래의 나눔을 선택할 수도 있다.)

-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으로써 기쁨과 행복을 느낀 적이 있었나요?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소공동체장)

교회에게 가난한 이를 위한 선택은 문화적, 사회학적, 정치적, 혹은 철학적 범주라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신학적 범주입니다. 하느님께서 가난한 이에

게 “당신의 첫 자비”를 드러내십니다. 이 신적 우선성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필리피 2,5) 가질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 고무된 교회는 가난한 이를 위한 우선적 선택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실천에서 우선성을 갖는 특별한 형태이며, 교회의 모든 전통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 베네딕토 16세가 가르친 것처럼 - “그분의 빈곤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할 만큼,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절대적입니다.” 그것이 제가 가난한 교회, 가난한 이를 위한 교회를 원하는 이유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신앙의 감각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생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통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를 복음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새 복음화는 그들의 삶에서 활동하는 구원의 힘을 인정하고, 교회의 순교 길에서 그들을 중심으로 삼으라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우리의 목소리를 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하며,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하며, 그들을 위해 말해야 하고, 하느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나눠주시려는 신비스러운 지혜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 복음의 기쁨 198항

◆ 생명의 말씀 정하기(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 자유기도 (진행자) - 영성체 후 : 마음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 사제와의 통교 - 미사 강복 후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1장 노래하겠습니다.

교리120

신앙의 목표(7)**7. 덕(德) - 사추덕(四樞德) - 절덕(節德, temperantia)**

사추덕 중 절덕(節德)은 영신적인 발전을 위해서, 음식이나 욕망을 적절하게 조절하거나 억제하는 덕을 말합니다. 이는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완덕을 추구하는 수도회에서는 회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로서 금식, 금육, 쾌락적인 욕망의 억제 등이 그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적 욕망에 의한 감각적 쾌락에 의해 욕망의 노예가 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성으로 규제할 수 있을 정도로 한정시키기 위해 하나의 덕행이 필요한데, 이것이 절제의 덕(節德)입니다. 그러나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마저 무리하게 억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제된 말과 절제된 행위를 잃을 때, 우리의 말과 행위는 한쪽으로 치우쳐 때를 가리지 않고 쉽게 흥분하고 또 남을 흥분시킵니다.

대통령이 언론을 흥분시키고 언론이 또 대통령을 흥분시키며, 노동자가 회사를, 회사가 노동자를 흥분시키는 데에는 절제하지 못하는 말과 행위가 크게 작용합니다.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극단적인 사고가 튀어나오고 극단적인 행위가 불거집니다. 그리고 모두를 갈등하게 합니다. 절제를 다시 찾을 때 평온이 다시 찾아들 것입니다.

말을 절제해봅니다.

사고를 절제해봅니다.

잘남을 절제해봅니다.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고를 절제해봅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앓과 봄과 들음을 절제해봅니다. 절제는 덕(德)입니다. 신앙인이 신앙 안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능력을 절제해봅니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사고는 인간을 발전시키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은 인간을 절제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만들어 파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려고 대들지 마십시오.

먹을 수 있다고 다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능력이 성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절제가 성공한 삶을 살게 합니다.

능력은 남에게 폭력을 가하는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절덕(節德)은 인간을 이 폭력에서 지켜줍니다.

절덕(節德)은 서로가 서로에게 폭력을 가하는 극단적인 행위에서 구해줍니다.

절덕(節德)은 작은 것과 적은 것에 만족하게 할뿐 아니라, 작은 것과 적은 것을 찬미하게 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작은 인간(어린이)은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은 절제의 인간이셨습니다.

절제의 인간은 부가, 많은 것이, 큰 것이, 높은 것이 반드시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식탁 위의 음식을 절반쯤은 내버리게 풍성하게 차린 식단보다 찌꺼기 하나 내버릴 것 없이 깨끗하게 먹은 빈 그릇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내적인 기쁨을 맛보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절제의 인간을 신앙의 덕목을 갖춘 이’**라고 칭송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맺어 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갈라 5,22-23)

교리121

신앙의 목표(8)

8. 덕(德) - 사추덕(四樞德)을 정리하며...

사추덕은 인간이 자신의 윤리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되는 많은 덕목 중에서도 기본적인 덕들이다. 즉 인간의 실제행동에 있어서 지덕(智德)으로 바른 길을 찾고, 정의는 공정(公正)을 이루어 주고, 용덕(勇德)은 진리나 선을 위해 자기의 능력을 조절하고 굳게 이행케 한다. 절덕(節德)은 과(過)나 불급

(不及)이 없도록 중용(中庸)을 지키도록 해준다. 인간의 윤리생활의 목적이 영원한 삶이라면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는 이 사추덕 외에 대신덕(對神德)과 경신덕(敬神德)이 추가된다. 하지만 사추덕은 인간 누구에게나 인간 본연의 자아완성(自我完成)을 위해 필요로 되는 기본 윤리덕목(倫理德目)들이다.

밭의 보물과 좋은 진주의 비유(마태 13,44-52) - 최인각 신부

‘하늘나라는 얼마나 좋은 곳이며 멋진 곳일까? 또 그곳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나는 하늘나라에 얼마만큼 관심을 두고 있는가? 정작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저는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종종 해 보곤 합니다. 마태오 복음 13,44-52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늘나라가 얼마나 값지고 좋은 것인지 알려주시며, 어떻게 그것을 발견하며 차지해야 하는지를 ‘밭에 숨겨진 보물과 좋은 진주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눈을 감고, ‘숨겨진 보물과 좋은 진주를 발견하여, 그것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사는 장면’을 그려 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기에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샀을까? ...’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을 잡고 흐뭇해하며,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사려는 이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생각만으로도 흐뭇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바로 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하늘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팔아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복음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와 닿았던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진주(하늘나라)의 가치를 알고, 서두름이나 다급함, 지나침 없이 그것을 찾아 나선 사람의 지덕(智德)입니다. 보물과 진주가 돼지에게는 정말 하찮은 것이지만, 그 가치를 아는 이에게는 정말 귀한 것임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숨겨진 보물’, ‘좋은 진주’를 발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향구히 그것을 찾아 얻으려는 모습이 선하게 그려지면서,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 (루카 11,9-10)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둘째, 보물과 진주(하늘나라)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는 이의 의덕(義德)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결코 공짜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것을 다 팔아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삽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었음에도 이에 감사하는 겸손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셋째,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하늘나라)을 사는 용덕(勇德)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보물이 숨겨진 밭, 좋은 진주를 살 수 있는 ‘용기’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큰 행운이 주어지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용기가 없다면, 그 행운은 남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행운을 차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소인배의 삶을 담대히 청산하고, 대장부로서의 삶을 항구하고 곳곳하게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넷째, 복음에 나타난 이들은 보물과 진주(하늘나라)를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로서, 절제의 덕(節德)이 가득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기가 막힌 행운의 순간을 위해 무던히 노력하며, 투자할 준비를 한 사람들입니다.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샀다’는 표현을 통해, 자기가 얻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고 땀을 흘리며 이를 준비한 사람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모두를 내려놓고, 절제와 정결의 삶을 살아온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한국 천주교회의 신앙 선조들이 기억났습니다. 이분들은 천주신앙이 민족의 구원과 복음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모든 것을 바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지덕, 의덕, 용덕, 절덕에 있어 남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평신도로서 겸손되이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하며, 천주교 신앙이 뿌리내릴 수 있는 초석을 놓으셨던 큰 분들이십니다. 이를 위해 자존심을 버리는 것은 물론, 자신의 목이 잘려나가는 것도, 민족의 구원과 복음화를 위해 배교의 누명을 쓰는 것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은 하느님 나라와 인류 구원을 위해 세상 사람으로부터 하느님 모독죄로,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 혼란죄로, 신법과 율법을 어긴 죄로 누명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 놓으신 것을 잘 알고 있던 한국교회의 신앙 선조들은 자신을 팔아 민족에게 구원의 신앙을 선물로 전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신앙 선조들과 같이 보물로 후손들에게 전해줄 것을 생각하며, 지덕과 의덕과 용덕 및 절덕을 갖추며 기쁘게 살아갑시다.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라 여기며, 기도 안에서 여러분과 만나고자 합니다. 아멘.

최양업 신부의 ‘사향가(思鄉歌)’

“잠깐 세상 위하다가 무궁세에 어찌하며 미친 마귀 섬기다가 흥(兇)한 화형(火刑) 어찌하랴 무궁세를 지내도록 영원 상생(常生) 이곳이라 우리 인생 바랄 것이 이곳 밖에 다시 없네 세상 만복 다 받은들 천당 복에 비길소냐. 인간고초(苦楚) 다 당한들 지옥 영고(永苦) 비할소냐. … 십계(十誡)로 장대(將臺)삼고 지덕(智德)으로 문(門)을 내고 애덕(愛德)으로 정병(正兵)삼고 겸덕(謙德)으로 기병(騎兵)삼고 묵상(默想)으로 병서(兵書)삼고 성경(聖經)으로 방패(防牌)삼고 절덕(節德)으로 기(旗)를 삼고 의덕(義德)으로 갑옷삼고 용덕(勇德)으로 말(馬)을 삼고 신덕(信德)으로 선봉(先鋒)삼고 망덕(望德)으로 복병(伏兵)삼고 고상(苦像)으로 절부(節斧)삼고 십자가로 창검(槍劍)삼세.”

교리122

신앙의 목표(9)

9. 덕(德) - 향주삼덕(尙主三德) - 신덕(信德)

향주삼덕(尙主三德), 곧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을 향해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순응하고 참된 삶을 지향할 때 형성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를 대신덕(對神德) 혹은 향주덕(尙主德)이라 합니다.

향주덕(尙主德)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평가되는 윤리덕(倫理德)- ‘사추덕’과 구별되는 것으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덕, 곧 신덕(信德), 망덕(望德), 애덕(愛德)을 가리키는 가르침입니다.

신덕(信德) - 성경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달는 것은 신앙하는데 중요합니다. 흔히들 그리스도교는 믿음의 종교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두 종교를 ‘믿음’과 ‘깨달음’이라는 개념으로 분류하는 것은 이 종교들을 잘못 이해한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불교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리스도교도 불교처럼 자기가 믿는 바를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교를 깨달음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보장받는 것처럼 말하는 종교로 본다면 그보다 더 큰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면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겠지요. 깨달지 못한 믿음은 인간을 맹신자와 광신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처님처럼 진리를 깨달은 분이시며 몽매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분은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당신이 선포한 것을 우리가 ‘묻지 마’ 식으로 믿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느님이 삼위일체이시라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든지, 하는 것은 ‘묻지 마’ 식으로 믿어야 할 교리가 아니라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깨달음을 얻었을 때 우리는 하느님처럼 삼위일체적으로 살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로 살고, 또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깨달을 생각은 하지 않고 믿으려고만 하는데서 맹신을 하고 광신에 빠지게 됩니다.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들어야 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신덕 信德)은 진실로 어떠한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진지하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부님은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글쎄요.” 하는 것이 저의 답변이었습니다. 당연히 “물론이지요. 그럼 누구를 믿겠습니까? 저는 하느님의 존재를 확고히 믿습니다.” 하는 답변을 기대했던 신자분은 저의 답변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의아해하는 그에게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신부니까 당연히 ‘믿습니다.’ 라는 답변을 원하셨겠지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내게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한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진짜 하느님일 수도 있고 또는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당신이 고안해낸 하느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믿는다, 안 믿는다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질문하며 생각한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말씀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만일 당신이 내게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한 하느님이 저 하늘 위에 좌정하여 계시는 분,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나쁜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해 아래를 굽어보시는 분, 아플 때 아프지 않게 해 달라, 불행할 때 불행하지 않게 해 달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저것 들어달라고 애원하면 그 열심의 정도에 따라 들어주시는 분이려면, 나는 그런 하느님은 없다고 생각하지요. 나는 ‘그냥’ 우리의 머리에 입력된 하느님이 아니라 ‘예수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느님을 믿기 때문이지요.”

구약의 지혜서의 저자는 말합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시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의 죄를 보아 넘겨 주십니다.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지어 내신 것을 싫어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 11,23-24). 교회가 믿는 하느님입니다.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나를 없애려고 하는 원수를 사랑하기란 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간에게는 가능하지 못한 이 사랑을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전능하신 분. 사랑과 미움을 갈라놓는 전능이 아니라 이 둘의 구분을 넘어 사랑하는 사랑을 하시는 분, 인간이 구분한 사랑과 미움, 선과 악, 행과 불행의 구별을 넘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천지의 창조주 하느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의 정도에 따라 우리의 기도나부랭이를 들어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미움, 이웃과 원수, 추종자와 박해자, 성과 속,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는 벽을 허문 ‘사랑’ 이신 하느님을, 은총의 하느님을 저는 믿습니다.

비안네 신부

목 주 기 도

목주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드러난 구원의 신비와 복음적 내용을 충실히 간직하고 있는 기도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란 구원의 신비를 깊이 체험하며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우리는 복음적이며 신비적인 이 기도를 열심히 바침으로써 주님의 신비에 더욱 깊이 일치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목주기도는 단순한 염경기도(구송기도)가 아니라 묵상기도임을 명심해야만 한다. 이 기도는 입술로만 바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바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사실 우리가 바치는 모든 기도가 그러하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빈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느님께서 들어 주시는 줄 안다” (마태 6,7). 천천히 정성되어 바치되 각 단에서 반복되는 주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칠 때마다 각 단에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를 마음 속 깊이 간직한다(목주기도 해설책자나 목주의 9일 기도문 등을 참조할 수 있음. 예 : 환희의 신비 1단 - 겸손의 덕을 묵상).

“관상의 요소가 없는 로사리오 기도는 영혼이 없는 육체에 불과하며 기도문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게 될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로사리오 기도는 그 본질상 고요한 리듬과 지속성을 요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일생의 신비를,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셨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으로 묵상할 수 있게 되며 그 무궁한 풍요성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 공경 47). 목주기도는 정성되어 바칠 때마다 주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목주기도가 이처럼 풍요로운 것일진대 가족간에 함께 바치는 것이 더욱 권장된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느님께 기도하며, 가정을 교회의 가정적 성소(聖所)로 삼을 때 가정은 그 받은 바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11항). “본인은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할 때 가장 즐겨 바치는 기도가 로사리오 기도라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마리아 공경 54장).

또 다른 교황님들의 권유 말씀을 들어 보자. “하루의 수고와 일과를 모두 마치고 온 가족이 한데 모이면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성모상 앞에서 기도와 사랑 안에 일치하여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도록 하라. 이 같은 기도생활을 실천하는 결과로써 가정생활에 큰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천상선물을 받게 될 것

이다” (교황 비오 11세). “인간 단체의 기본이요, 근원이라 할 수 있는 가정
이 복음의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즉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다면 흔들
거리는 현 국가생활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헛된 일이다.... 이러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는 묵주기도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신한다.
땅거미가 짙 무렵 그리스도 신자 가정에서 하늘의 여왕을 찬미하는 기도의 소
리가 흘러나옴은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가!” (교황 비오 11세).

오늘날의 분주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사실상 가족 간에 자주 만나기가 어렵
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교인 가정에서는 이러한 장애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만 한다. 그럼으로써 “가정교회”의 모습을 가꾸어 나갈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묵주기도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 의해서나 혼자이든 여럿이든
손쉽게 바칠 수 있고 정성되이 바쳐야 하는 기도이다. “로사리오 기도는 매
우 뛰어난 기도입니다. 내적인 평화와 자유를 누려야 할 것이며, 이 기도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에 이끌려 평온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
다” (마리아 공경 55항).



❖ 12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나탈리아 (St. Natalia)	전 하 림 김 성 미	25일	미 누 엘 (St. Manuel) 엠마누엘라 (St. Emanuela) 노 엘	김 무 진 허 선 애 이 동 훈
2일	비비아나 (St. Bibiana)	남 궁 현	26일	스테파노 (St. Stephen)	이 명 원 정 순 문 박 동 윤
3일	비 앙 카 (St. Bianca)	허 미 란			
4일	크리스티안	허 채 열 김 호 현			
6일	니콜라스 (St. Nicholas)	손 찬 희			
8일	마 리 아 (St. Maria)	박 순 옥 이 순 자 이 영 희 홍 미 옥	27일	요 한 (St. John)	이 기 열
13일	루 치 아 (St. Lucy)	박 우 연 배 수 현	29일	다 비 드 (St. David) 사 비 네	김 용 일 이 금 자
15일	크리스티아나 (St. Christiana)	홍 춘 자			
16일	노 아 아델하이트	박 노 아 진 윤 희			

❖ 12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일	비비아나 (St. Bibiana)	이진아(O)	23일	빅토리아	강연희(H)
			25일	아나스타시아 노 엘 라	김영숙(B) 김유경(H)
13일	루 치 아 (St. Lucy)	문정자(H) 강은지(B)	26일	스 테 판 스테파노 (St. Stephen)	문우영(H) 부종배(O) 유순식(H)
				스테파니	이경숙(H)
			28일	돔 나	김효선(H)
			29일	데 이 빗	정유석(H)
	오텔리아	김선우(O)			

❖ 12월 미사 전례 봉사자 ❖

12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카페 봉사
6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김동수(시몬) 강신자(벨라뎃따)	이정수(토마스)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2구역
13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이철우(아우구스티노) 이영희(세실리아)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곽케빈(요셉)	3구역
20일	김민수(아우구스티노) 이선주(로사)	허선애(임마누엘라) 윤예진(모니카)	이수빈(젼마) 배수현(루치아)	4구역
25일	이경규(안스카) 유곡지(아그네스)	김부남(베드로) 박우연(루치아)	김진호(프란치스코) 곽케빈(요셉) 이정수(토마스)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청년부
27일	김형웅(야고보) 김정자(젼마)	김치수(도밍고) 김영희(클라우디아)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이현묵(요셉)	전체신자

❖ 12월 성가번호

12월	입 당	봉 헌	마 침
6일	92	220	96
13일	93	511	41
20일	91	212	89
25일	102	217	484
27일	114	211	113

❖ 세상을 떠난 교우를 생각합니다. ❖

12월 25일	쑤배연자 말지나	(주님, 세상을 떠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2월 7일	쑤이채옥 제노바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11월 1일	11월 8일	11월 15일	11월 22일
계(€)	307.09	199.07	215.76	229.61
주 일	2차 헌금			
계(€)	181.11			

❖ 자진헌납금 ❖

2015년 10.26—11.22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진윤희, 정마리아, 서세원, 박귀동, 박재형, 박춘실, 현영애, 정정숙, 최장용, 박성금, 김형웅, 이정은, 한말조, 배성우, 손대조, 이공종, 최순남, 정명옥, 이경규, 박경원, 이수웅, 이영희, 강신행, 김부남, 심동근, 우동천, 이기열, 이종화, 이현묵, 윤예진, 손수희, 육종인, 김민수, 이정수, 한선지

구좌입금 :

강일남, 김대현, 김동수, 김유석, 김진호, 김치수, 남궁 춘배, 백정선, 방영자, 허채열, 권지연, 최화영, 최성자, 이상봉, 허두욱, 서유미, 허길조, 곽케빈, 최현봉, 이성원, 오옥수, 홍경영, 이영원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회장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11월 23일 새벽 5시경 손대조 요셉 형제님께서 작고(作故)하셨습니다
장례미사는 12월 1일(화) 10:00 함머 성당이며, 12:30 Ohlsdorfer에서 안치식 합니다. 기도 중에 기억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길 청합니다.
2. 대림 묵상집에 배부 됩니다. 새로운 출발에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3. 대림시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성사 약속은 삼가시고 주일 미사 전 후에 성사 시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4.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임 신부님께서 한국으로 출타하십니다. 주임 신부님의 부친(父親) 최동규 바오로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길 청합니다.
5. 주임 신부님의 출타 중에 “문재상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사목을 하십니다. 평일 미사와 주일, 지방 공동체 미사는 평소 같이 봉헌되어 집니다.
6. 12월 27일 송년미사는 17:00 예수 성심 성당(함머성당)입니다.
7. 예비자 김보경 자매님, 김경미 자매님, 김 건 형제님, 노하빈 자매님, 이희자 자매님께서 하느님의 아름다운 도구 되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길 청합니다.
8.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도움을 주시길 청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함부르크 교구와 함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 11월, 12월은 지방 공동체 판공성사가 있습니다.
미사 전 1시간 전부터 성사가 봉헌되어집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브레멘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 / 2431
2. 소공동체 기도모임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14:00 브레멘 서 아우구스티노 형제님 댁에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4:00 비스벡 김 데레사 자매님댁에서 각각 갖습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하노버 공동체에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00시에 소공동체 기도모임을 안토니오 성당에서 갖습니다.
2. 하노버 공동체는 함부르크 공동체 난민 도움에 120유로를 봉헌하였습니다.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11월 14일 정기미사는 공동체 위령성월 미사로 봉헌되었습니다. 특히 이 미사에 교환학생으로 유학중인 신수민, 안유정, 이승연, 박서정님이 처음으로 천주교 미사에 참례하였습니다.
2. 11월 29일, 대림 첫 주일 오후에 마리오, 비비안나 가정에서 소공동체 기도모임과 성탄절 합창연습을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3. 최한우 바오로 형제의 회장직 봉사임기가 12월에 마감됩니다. 새 회장 봉사자의 선출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한 말 조 마리안나	040/ 5069 7342 0157 7021 0466
구 역 장 모 임		매월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구 역 분과장	회장단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사	이 선 주 로 사	0176 7636 2699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00분	만남성당	회 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0152 0448 7382
예 비 자 교 리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허 길 조 안드레아	040/ 555 3441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강 순 행 말가리다	040/ 297 543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김 영 희 클라우디아	040/ 532 4138 0177 724 6335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구 역		1구역	구역장	최 화 영 시 문		8903264
			총 무	김 정 속 마르타		8322587
		2구역	구역장	허 채 열 크리스티안		5709734
			총 무	김 수 희 모니카		04106-72958
		3구역	구역장	김 형 웅 야고보		0157 84305419
			총 무	김 정 자 켄 마		6310912
		4구역	구역장	정 명 옥 살로메		6448623
			총 무	이 순 자 마리아		41091742

❖ 2015년 12월 ❖

12 월 중 행 사 예 정 표

(구역 소공동체 모임 없음)

일	요일	전례일	기관·단체 행사	비고
1	화			
2	수			
3	목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선교의 수호자) 대축일	꾸리아	
4	금			
5	토			브레멘 공동체
6	일	대림 제2주일(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간	사목협의회	
7	월	성 암브로시오 주교 학자 대설		
8	화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9	수		대림특강 19:00 강당	
10	목			
11	금			
12	토			오스나브뤽 공동체
13	일	대림 제3주일(자선 주일)	청년 소공동체	
14	월	십자가의 성 요한 사제 학자 기념일		
15	화			
16	수		요셉 마리아 소공동체	
17	목			
18	금			
19	토			하노버 공동체
20	일	대림 제4주일		
21	월			
22	화	동지		
23	수			
24	목		성탄 전야 미사	각 독일 본당
25	금	예수 성탄 대축일	예수 성심 성당 15:00	
26	토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		
27	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송년미사 및 행사 - 17:00 함머	가정 성화 주간
28	월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		
29	화	성탄 팔일 축제 내 제5일		
30	수	성탄 팔일 축제 내 제6일		
31	목	성탄 팔일 축제 내 제7일	연령회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목회장 한 말 조 마리아나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발 행 인	최 종 태 요한마리아비안네 본당신부님	viannae@hanmail.net H.P : 0176 8464 7981
편 집 인	남궁춘배 바로톨로메오	cbnamgoong@hanmail.net H.P : 0151 2341 2732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내용은 함께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시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금요일 각 소공동체 17시 30분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최한우(바오로), Tel : 0541 37027

H.P : 0157 5436 0230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회 장 : 이범이(바오로), Tel : 0511 748945,

H.P : 0157 5447792